



# YUANTA YESG

## 01 이슈 포커스

- Anti-ESG에 대한 피로감을 노출하는 미국 금융업계
- ESG를 선호하는 미국 가계
- KT CEO 선임 과정에서 제외된 KT 소액주주의 목소리
- CEO 선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주주들의 부담

## 02 ESG ETF: 유형별 자금 동향

## 03 Global Fund/ETF 성과 분석

## 04 국내 ESG 종목 현황

## 05 뉴스&정책 동향

## 06 ESG 키워드 Study: 액화수소

## 07 주간 ESG 성과 & 자금 동향

## Anti-ESG에 대한 피로감을 노출하는 미국 금융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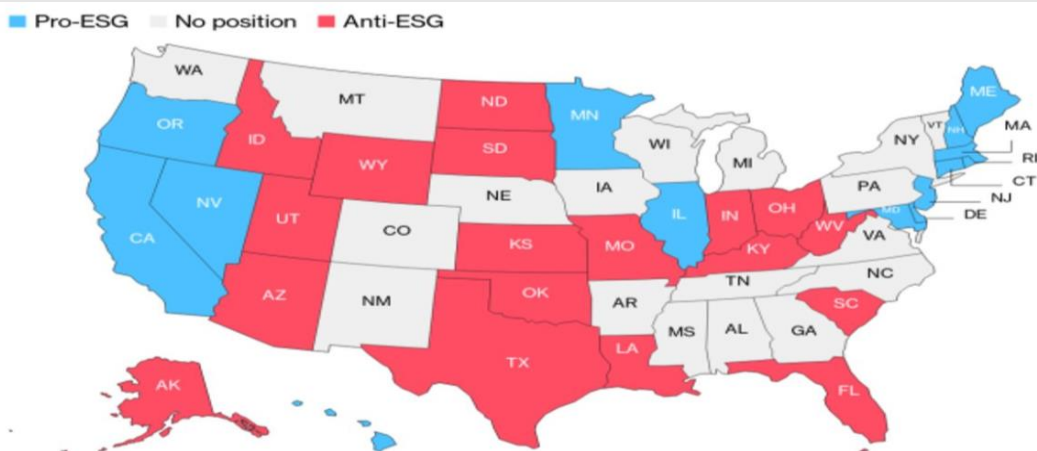
대형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는 미국 공화당의 Anti-ESG 공세에 대해 투자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랙록을 비롯해 블랙스톤은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 ESG투자에 관한 Anti-ESG가 재무제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연기금과 퇴직연금 운용사가 기후변화 대응 등 ESG요소를 고려해 투자처를 선택하고 주총회에서 대리투표 등을 통해 ESG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은 연기금의 ESG요소 기반 투자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속되는 Anti-ESG 움직임이 관측되며 미국의 금융업계에서는 피로감을 노출하고 있다.

공화당 집권 주에서는 ESG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 주 연기금이 자산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법 제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의회 청문회에서 ESG투자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 받기도 했다.

Anti-ESG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오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 다만 ESG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집중하는 유럽과 달리 아직 ESG가 주류로 정착하지 못한 미국내에서 움직임은 ESG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ESG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전세계적으로 확장된 ESG에 대한 기류는 역류 될 수도 있다.

미국 내 Anti-ESG 기조가 확대된 지역



Source: Bloomberg Law analysis

Bloomberg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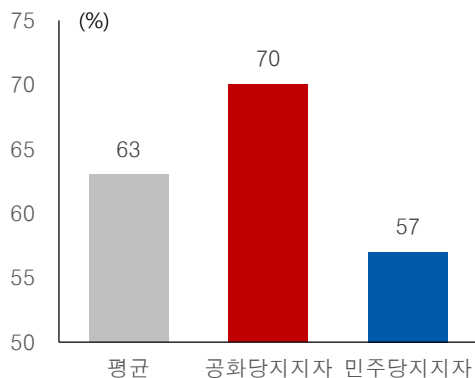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ESG를 선호하는 미국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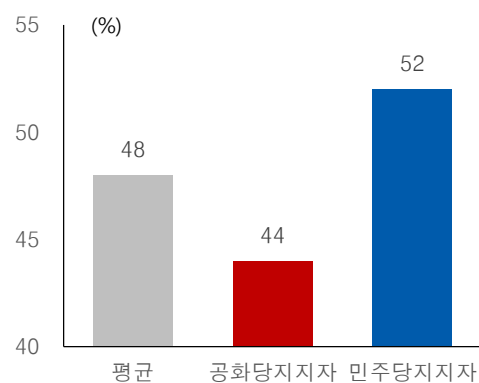
기업 성과 측정 플랫폼인 JUST Capital은 미국 전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기금의 ESG 투자 금지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주주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주로 받았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미국인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연기금의 ESG 투자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ESG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가 더 바람직한 투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이 기업의 ESG 투자에 법적인 제재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ESG 투자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의 57%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지지자 중 7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반ESG 공세에 공화당 지지층이 더 강하게 반대하는 이례적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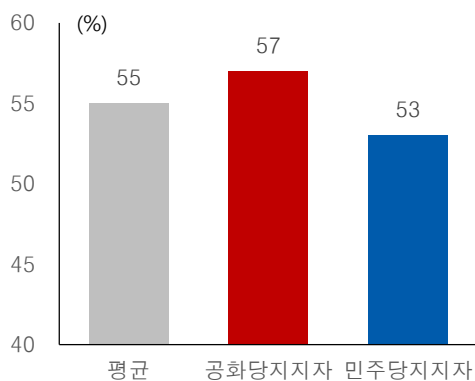
### 기업의 ESG 투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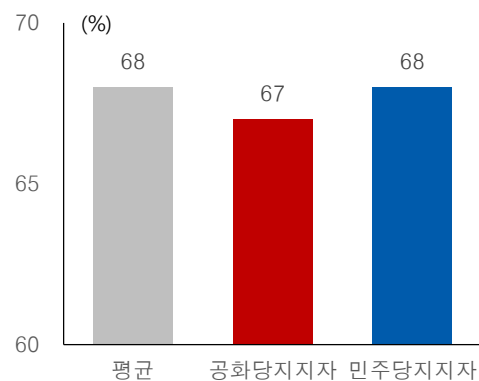
### 기업 ESG 전략에 대한 정부 감독 지원



### 기업의 사회적 문제 관여에 대한 정부의 감독



### ESG를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취소 반대



자료: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KT CEO 선임 과정에서 제외된 KT 소액주주의 목소리

지난 23일 구현모 KT CEO가 연임 포기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한 이후 KT 주가는 4.8% 하락했다. 양호한 4분기 실적, 강력한 주주환원(자사주 매입 3,000억 원, 소각 1,000억 원) 발표 이후의 주가 하락이라는 점에서 KT CEO 선임 과정에 대한 주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KT CEO의 연임 도전 공식 발표 이후, 국민연금의 메시지('22년 12월), 경제계 신년 인사회 구현모 KT CEO 불참(1월 2일), 대통령실 브리핑(3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3월 7일)으로 이어지는 압박으로 구현모 CEO의 연임 포기에 이어, 이강철, 벤자민 홍 사외이사의 자진 사퇴가 이어졌다.

차기 CEO 후보로 확정된 윤경림 현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의 완주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현모 KT 대표와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 보도됐다. KT 새노조는 지난 3월 7일 성명서를 내고, 윤경림 사장 후보는 구현모 체제의 연장이며, 이는 미국 SEC의 과징금 부과, 검찰 수사 등에도 구현모 체제에 대한 혁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규정했다.

주주 관점에서 KT CEO 선임 과정을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권이 KT CEO 인선에 관여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영화 이후 KT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 중 연임 임기를 끝까지 채웠던 이는 황창규 전 회장이 유일하다. 그 과정에서 남중수 전 CEO는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퇴진했고, 이석채 전 회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둘째, 역대 KT CEO 중에서 구현모 KT CEO의 성과가 가장 탁월했다는 점에 있다. 재임 기간 중 주가는 41.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6조 원 → 1.69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및 금융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은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통신 사업자는 플랫폼, CP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다가, 특히 혁신과 변화에 취약한 문화를 갖고 있는 KT가 이뤄낸 변화의 성과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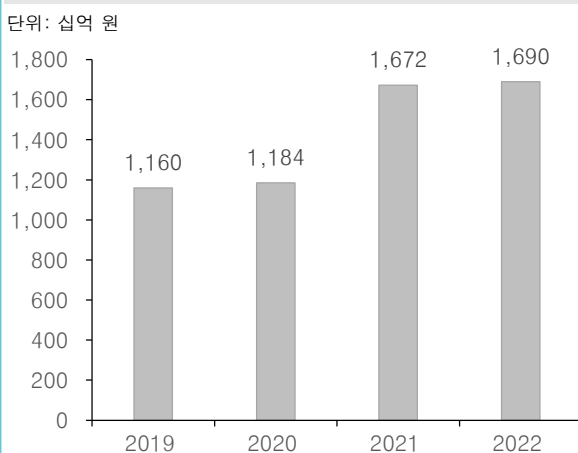
셋째, 이러한 평가 덕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2년 KT와 SK텔레콤의 주가 수익률은 10% VS -18%로 KT의 절대적인 압승이었다.

### CEO 선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주주들의 부담

주주 입장에서 CEO에게 기대하는 덕목은 ①리더십, ②전략적 사고, ③재무 통찰력, ④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다. 여기에 주주들은 CEO가 성실한 자세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주주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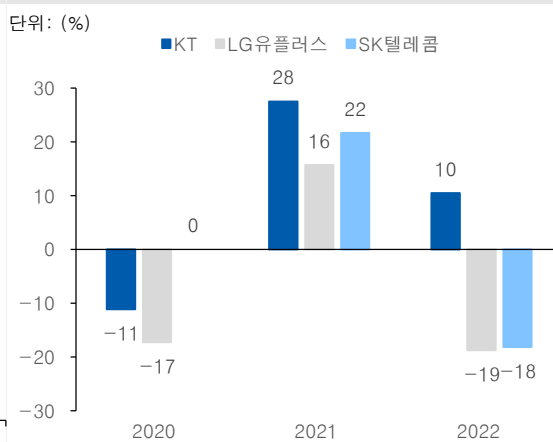
KT의 구현모 대표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쳤는가? 아니면 KT의 윤경림 대표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 부족한가? KT CEO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CEO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를 교체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오롯이 주주에게 돌아갈 뿐이다.

2019-2022년 KT 연결 영업이익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의 주가 수익률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Category 1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AUM	주간 순유출입	4주	52주	YTD
ESG 통합	167,034.9	291.2	1,870.0	17,681.5	4,532.5
환경	29,119.8	-17.7	-113.0	457.4	-463.3
S&G (사회&지배구조)	4,606.7	8.9	2.2	276.7	-452.2
합계	200,761.5	282.4	1,759.1	18,415.5	3,617.1

주: 2023.3.10 기준 / 단위: 백만\$

## Category 2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Category 2	AUM	1주	4주	52주	YTD
ESG 통합	전세계 ESG	8,718.7	20.7	20.5	322.7	94.5
	선진국 ESG	136,681.7	110.9	1,084.7	12,948.7	1,346.8
	신흥국 ESG	21,634.5	159.6	764.8	4,410.0	3,091.1
S&G	사회적 기준	4,606.7	8.9	2.2	276.7	-452.2
환경	클린에너지	15,795.5	-18.4	-138.1	532.4	-458.0
	수자원	6,585.8	-13.5	-17.3	-221.2	-37.3
	전기차/배터리	2,763.4	10.6	39.9	-152.9	87.9
	수소	731.9	4.4	15.6	249.0	30.9
	기타환경	619.3	0.0	21.7	72.7	18.2
	태양광	2,342.5	0.0	-30.3	-13.6	-110.7
	풍력	281.5	-0.9	-4.4	-8.9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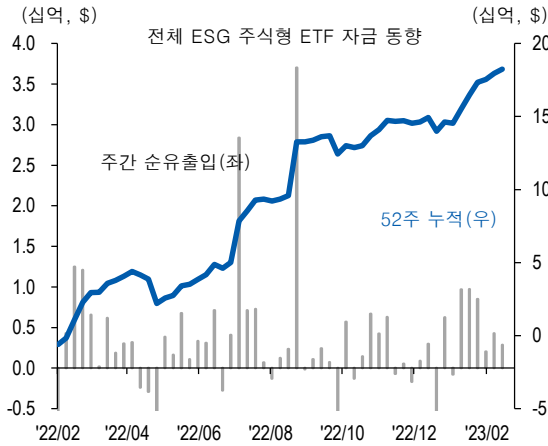
주: 2023.3.10 기준 / 단위: 백만\$

## 유형별 ETF 자금 동향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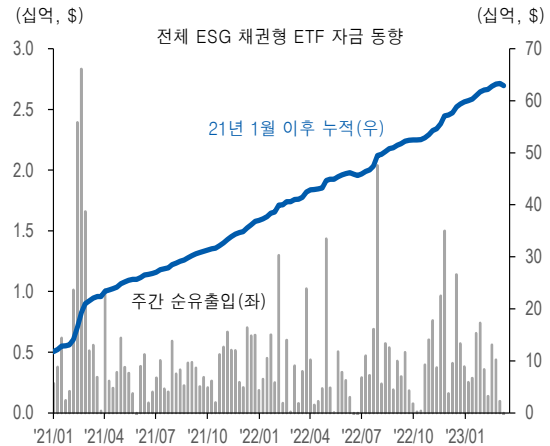
## 환경 테마의 Flow 유출 둔화

- 상위 테마 중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환경 테마의 주간 Flow 유출 둔화세가 나타남. 특히, 태양광 테마는 최근 발표된 미국 First Solar의 견조한 4분기 실적과 IRA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투자 심리 회복
- 모든 테마 합계 Flow 순유입세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수자원 테마의 주간 Flow 유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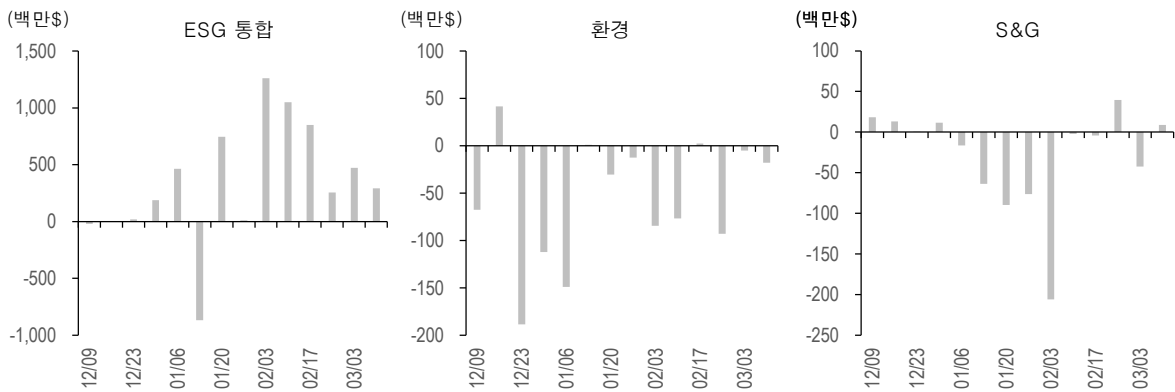
6주 연속 ESG주식형 테마의 자금 유입세 지속



ESG채권형 테마는 지난해 6월 이후 첫 자금 유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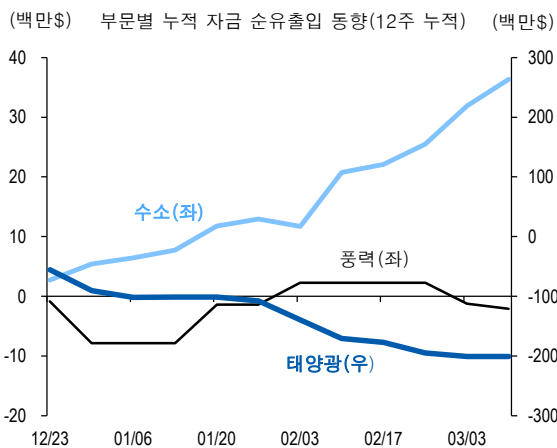
12주 주간 유출입 동향. S&G 테마의 순유입 전환과 ESG 통합 테마의 강세 지속 확인. 환경 테마는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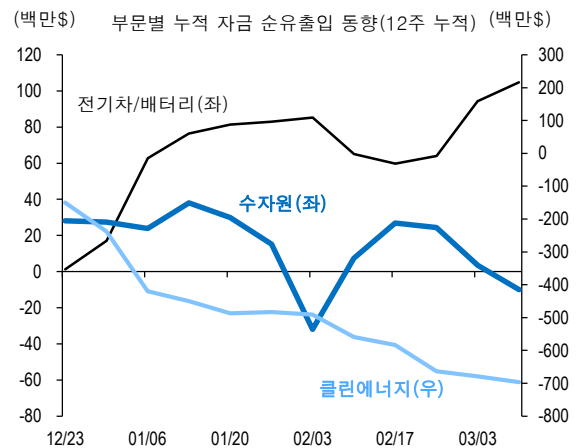
ESG 테마 자금 동향



수소 테마 Flow 강세 지속. 태양광 테마 유출세 둔화



전기차/배터리 유입이 발생한 반면, 수자원 테마 약세 심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ETF - 순유입 Best&Worst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순유입	4주	52주	YTD
1	신흥국 ESG	룩셈부르크	Amundi IS MSCI Emerging ESG Lds ETF DR	1,417.4	177.4	223.7	665.7	539.0
2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Edge MSCI USA Min Vol ESG \$ Acc	791.2	141.3	147.7	-792.6	23.4
3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Japan ESG Scrn ETF USD Acc	1,175.3	21.7	32.3	123.4	109.8
4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World ESG Scrn ETF USD Acc	1,779.1	21.2	7.1	103.2	107.1
5	전기차/배터리	중국	Ping An-UOB CSI New En Car Ind ETF	902.1	12.1	38.5	200.2	105.8

Wor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순유출	4주	52주	YTD
1	선진국 ESG	아일랜드	Invesco S&P 500 ESG ETF	1,884.0	-52.9	-60.0	266.3	15.7
2	신흥국 ESG	홍콩	Haitong MSCI CHN A ESG ETF	8.2	-23.4	-23.4	-12.7	-40.9
3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Edge MSCI Wld Min Vol ESG \$ Acc	719.9	-18.0	-38.3	469.2	-322.8
4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EMU ESG Scrn ETF EUR Acc	953.7	-15.5	-19.6	-129.0	38.2
5	클린에너지	미국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4,744.6	-13.4	-81.9	-65.6	-217.5

주: 2023.3.10 기준 / 총자산, 순유출입: 백만\$

ESG ETF - 수익률 Best&Worst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1	선진국 ESG	뉴질랜드	Smartshares Japan Equities ESG ETF	15.3	3.4	1.7	6.1	7.9
2	신흥국 ESG	캐나다	Desjardins RI Em Mkts MF Low CO2 ETF	97.0	3.1	2.9	-4.1	5.9
3	선진국 ESG	룩셈부르크	IndexIQ Factors Sust Eurp Eq ETF C	133.3	0.8	1.3	8.1	9.3
4	선진국 ESG	캐나다	iShares ESG MSCI EAFE Leaders ETF	4.2	0.8	0.4	5.6	3.3
5	전세계 ESG	캐나다	TD Morningstar ESG International Eq ETF	3.3	0.7	1.1	4.4	7.1

Wor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1	클린에너지	미국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744.2	-9.8	-9.1	-33.4	2.9
2	선진국 ESG	미국	Nuveen ESG Mid-Cap Value ETF	318.3	-9.6	-11.6	-15.5	-5.3
3	전기차/배터리	미국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406.4	-8.8	-8.8	-12.6	8.2
4	수소	캐나다	Horizons Global Hydrogen ETF	3.5	-8.4	-10.9	-33.6	3.5
5	신흥국 ESG	룩셈부르크	UBS(Lux)FS MSCI CHN ESG Unvsl USD Adis	258.6	-8.2	-8.8	-3.3	-4.6

주: 2023.3.10 기준 / 총자산: 백만\$, 수익률: %

펀드 플로우 Comment

선진국과 신흥국의 ESG ETF로 자금 유입

-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ETF의 순유출입 변동성이 컸던 주간.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 설정된 ETF는 매크로 변동성이 커질 때, 자금 유출입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iShares의 선진국 ETF로 중장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해지는 추세
- 2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해외 친환경 ETF에 포함된 국내 종목 List

코드	종목명	시총	포함 ETF 수	분류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1,317,420	1	2차전지	2.9	7.9	54.9	29.3
A018000	유니슨	2,028	3	풍력	2.3	-8.2	-37.0	2.1
A112610	씨에스윈드	30,490	4	풍력	1.1	1.4	11.2	5.1
A336260	두산퓨얼셀	23,218	2	수소	1.0	2.2	-10.7	20.8
A000270	기아	319,426	1	전기/수소차	0.4	7.7	14.5	32.9
A100130	동국S&C	2,803	1	풍력	0.3	0.3	-11.0	7.4
A009830	한화솔루션	79,572	1	태양광	0.0	-9.5	18.0	-3.3
A012330	현대모비스	206,013	1	전기/수소차	-0.2	5.3	6.3	9.0
A005380	현대차	372,295	2	전기/수소차	-0.8	2.6	7.0	16.6
A051910	LG화학	506,853	3	2차전지	-1.1	7.2	57.1	19.7
A322000	현대에너지솔루션	5,846	1	태양광	-2.4	-1.3	129.5	7.0
A005930	삼성전자	3,581,870	1	IT	-2.4	-4.6	-14.5	8.5
A011210	현대위아	15,202	1	전기/수소차	-2.4	3.3	-4.4	13.0
A082920	비츠로셀	3,194	1	2차전지	-2.6	-5.3	10.3	16.3
A064960	SNT모티브	7,078	1	전기/수소차	-3.0	1.8	16.8	15.2
A047310	파워로직스	1,972	1	전기/수소차	-3.4	11.9	-17.1	30.7
A213420	덕산네오룩스	10,392	1	소재	-4.9	10.4	7.2	7.0
A006400	삼성SDI	507,482	5	2차전지	-5.5	2.1	50.3	24.9
A361610	SK아이이테크놀로지	45,916	1	2차전지	-5.7	-3.3	-40.6	21.5
A247540	에코프로비엠	198,537	2	2차전지	-6.5	46.0	154.8	120.4
A018880	한온시스템	47,562	1	전기/수소차	-6.6	0.5	-22.5	10.1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29,880	3	전기/수소차	-8.2	2.2	-21.9	24.9

주: 2023.3.13 종가 기준

## 국내 종목 Comment

## 증시 불확실성 확대 vs. 국내 수급의 변화

- 금리 인상, 미 은행주 파산 등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ESG 관련주도 주가조정에서 불가피한 모습.
- 2차 전지 관련주는 2월 이후 아웃퍼폼으로 차익실현 수요도 자극했던 것으로 판단. 전일 조정폭을 줄인 점은 고무적인 부분. 외국인,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수급 상황도 과거와는 대비되는 모습. 다만, 밸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종목의 변동성 확대 부분은 유의가 필요.

## 기업 ESG 뉴스

기업명	이슈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제 54기 정기 주총 관련 주주총회 참석장, 소집통지서, 주주통신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전자공시시스템과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로 결정</li> <li>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총 관련 우편물을 참석장과 간이 안내문으로 간소화한 데 이어, 올해 모두 전자공고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약 3,500만장, 원목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li> </ul>
SK머티리얼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머티리얼즈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등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8리버스(8Rivers) 인수를 위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안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힘</li> <li>8리버스는 99% 이상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클린 전기 및 블루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 SK머티리얼즈는 당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미국 클린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li> </ul>
롯데케미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롯데케미칼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다양한 수소 기업과 협업을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해 국내로 도입하는 친환경 수소, 암모니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li> <li>특히 미국의 글로벌 암모니아 최대 생산 기업인 'CF인더스트리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포집기술(CCS)를 적용한 청정 암모니아 생산과, 이를 한국으로 공급해 전력 발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li> </ul>
SK케미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케미칼은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그린소재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위한 그린소재 사업 중심의 '에코 트랜지션' 달성 목표를 제시</li> <li>특히 환경호르몬 비스페놀(BPA) 검출 우려가 없는 재생플라스틱 코폴리에스터의 지속적인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 2024년 생산능력 25% 확대 계획에 이어 2030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밝힘</li> </ul>

## 기관&amp;정책 ESG 뉴스

기관명	이슈
유럽연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연합(EU)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채택을 통해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용 윈드터빈,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 등 5개 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완화</li> <li>해당 프레임워크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펜데믹 복구 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2,250억 유로는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2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활용될 계획</li> </ul>
유럽 1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등 유럽의 11개국은 원전 안전 규정의 공동 마련,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공동 사업, 원전 신기술 개발 협력 등을 위한 원자력 동맹을 결성</li> <li>동맹 결성을 주도한 프랑스는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 달성 과정 중 원전의 역할 강화 중요성을 강조. 또한, EU의 탈탄소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원전을 더욱 비중있게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힘</li> </ul>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정부는 녹색혁신펀드(Green Innovation Fund)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활용해 호주에서 갈탄으로 생산된 수소를 자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에 총 2,200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li> <li>해당 프로젝트는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이 주도하며 2020년 말 연간 3~4만 톤 규모로 시작해 연간 22만 5,000톤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li> </ul>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li> <li>올해 총 예산은 558억 규모로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건설링 바우처 등 3개의 트랙으로 진행. 또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가 하반기에 추가될 계획</li> </ul>

**액화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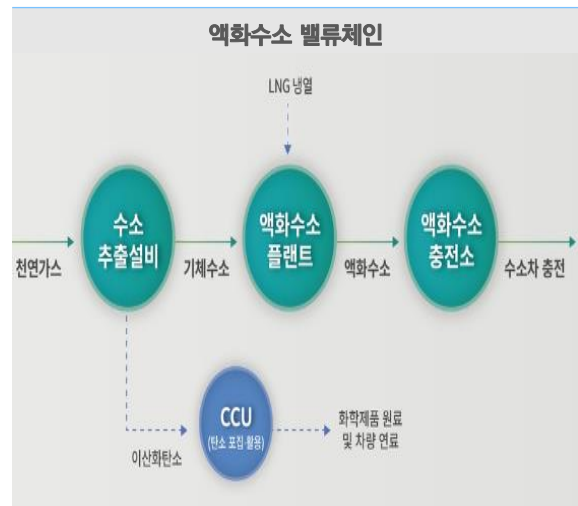
액화수소는 수소기체를 끓는점(-253℃) 이하로 온도를 내려 액상 상태로 변환한 형태의 수소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고압의 수소기체에 비해 높은 저장용량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경제 확대에 따라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액화수소 공급비율은 각각 87%, 63% 수준으로, 비 액화수소 공급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 액화수소 시장은 도입기로, 일부 기업이 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액화수소 정착을 위해서는 액화수소 충전소 등 수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기업 중 연내에 두산에너지빌리티와 SK E&S, 효성중공업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준공돼 연간 최대 4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SK E&S는 연 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액화수소 플랜트를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연 5,200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연 1,7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각각 올해 12월과 상반기 중 가동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공급에 맞춰 정부에서 일정 수준 수요를 지원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는 액화수소 수요를 늘리는 등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신설하고 통근버스와 경찰버스를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2025년까지 40곳 신설하고 2030년에는 70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국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계획			
	SK E&S	효성중공업	두산에너지빌리티
생산규모	90톤/일 (3만톤/년)	90톤/일 (3만톤/년)	90톤/일 (3만톤/년)
설치지역	인천	울산	창원
생산시기	2023년 10월	2023년 12월	202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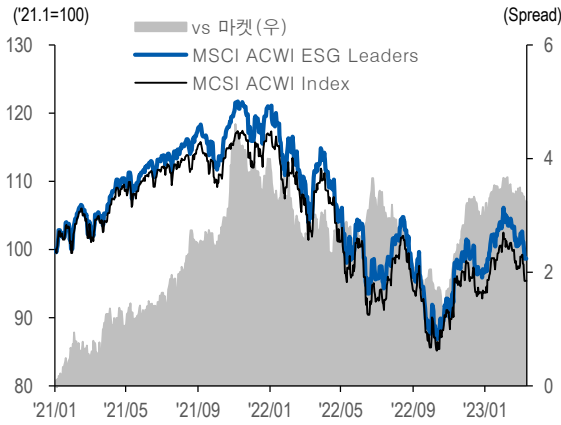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가스공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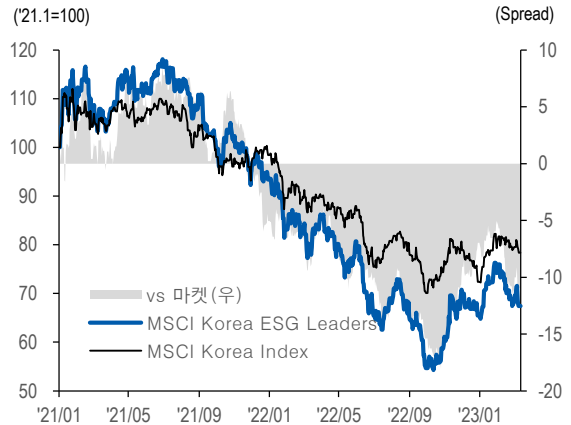
Passive / ETF Analyst 고경범  
02-3770-3625 / gyeongbeom.ko@yuantakorea.com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확대로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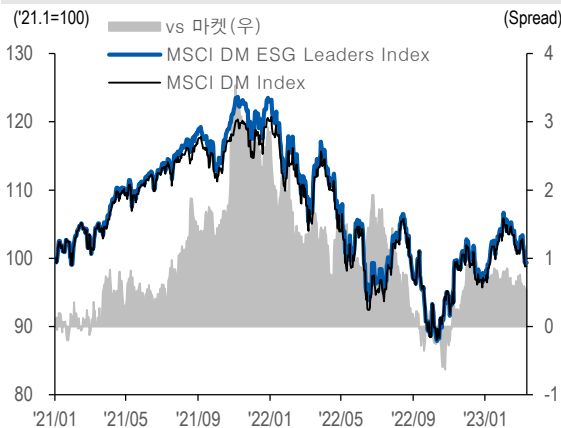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약화로 인한 상승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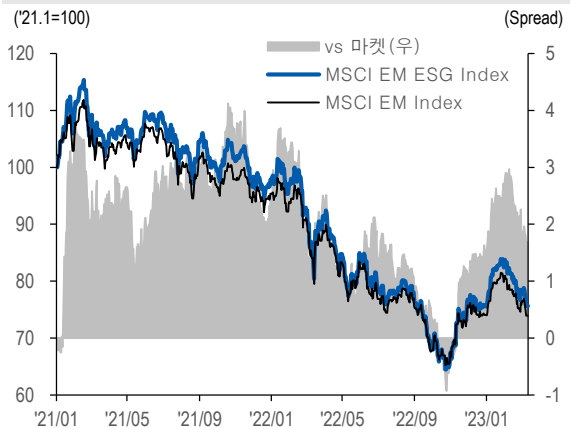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및 고용지표 혼조로 증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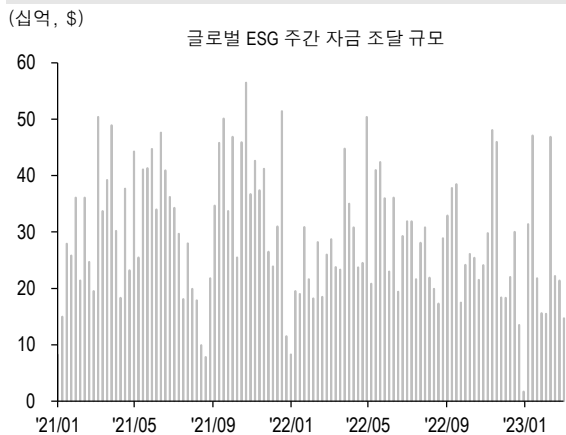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부진한 물가지표와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 등 이슈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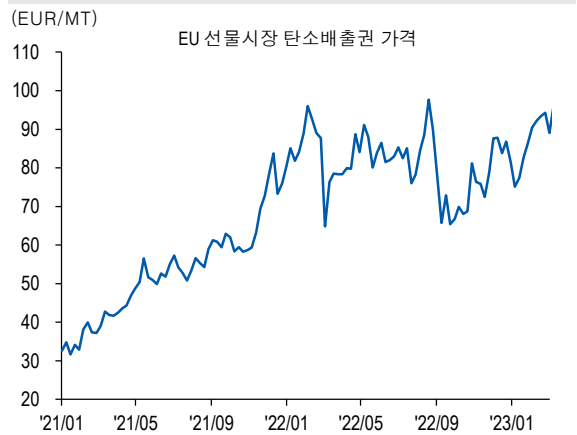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자금 조달 시장, 2억 달러 조달(3월 2주)**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96.72 유로(3월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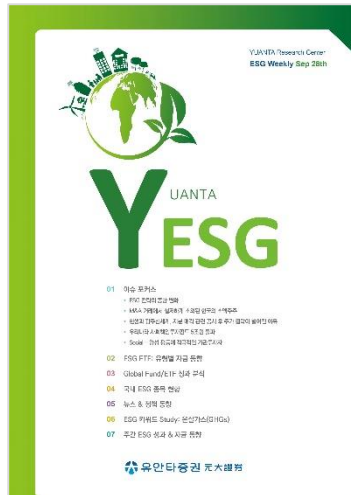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Yuanta ESG Weekly 발간 기록

발간일자	컨텐츠
2022.09.20	<a href="#">YESG Weekly Vol. 43</a>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 종합 의견 청취 결과 / Anti ESG
2022.09.27	<a href="#">YESG Weekly Vol. 44</a> • 어려워지고 있는 SDG 달성, 공조가 필요 / 금융위,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2가지 제고방안 발표
2022.10.18	<a href="#">YESG Weekly Vol. 45</a> •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에 대한 IMF의 분석 / 스웨덴 연기금(AP4)의 ESG
2022.10.25	<a href="#">YESG Weekly Vol. 46</a> • 스코프3, 유연성과 함께 의무화의 방향으로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개시
2022.11.01	<a href="#">YESG Weekly Vol. 47</a> • 다가온 COP27, 먼저 살펴보는 주요 의제 / Social과 아동 노동 착취
2022.11.08	<a href="#">YESG Weekly Vol. 48</a> • 미국의 중간선거와 ESG 투자 우려 / 이사회 전문성 확보에 대한 담론
2022.11.15	<a href="#">YESG Weekly Vol. 49</a> • IOSCO의 권고, 탄소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입 필요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 증가
2022.11.22	<a href="#">YESG Weekly Vol. 50</a> • 다소 실망스러운 COP27 결과 / Alphabet에 대한 주주 캠페인
2022.12.06	<a href="#">YESG Weekly Vol. 51</a> • 11월 빅 이벤트 이후, 최근의 변화들 / 우리나라 ESG주식펀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음
2022.12.13	<a href="#">YESG Weekly Vol. 52</a> • EU 항공사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주식의 과세특례 유예기간 도래
2022.12.20	<a href="#">YESG Weekly Vol. 53</a> • EU 탄소국경세(CBAM) 대상 품목, 규제 조건 확대 / 투자심리 위축되는 글로벌 ESG 주식펀드
2023.01.03	<a href="#">YESG Weekly Vol. 54</a> • 강화되는 글로벌 연기금의 탄소중립 투자 / 금융위 주도로 배당 제도 개선 움직임
2023.01.17	<a href="#">YESG Weekly Vol. 55</a> • 유럽 ESG 시장으로 향하는 관심 / 오존층 2040년 대부분 회복 전망
2023.01.31	<a href="#">YESG Weekly Vol. 56</a> • 국내 ESS 기술 확보와 투자를 위한 움직임, ESS의 필요성 / 금융위원회,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안 추진
2023.02.14	<a href="#">YESG Weekly Vol. 57</a> • 증가하고 있는 ESG를 고려한 의결권 행사 /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
2023.02.21	<a href="#">YESG Weekly Vol. 58</a> • ISSB, ESG 공시 기준 승인 / 현대백화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 부결
2023.02.21	<a href="#">YESG Weekly Vol. 59</a> • 주요 탄소배출 업종,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지원 /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증가

주: 지난 호의 제목([YESG Weekly Vol.#](#))을 클릭하시면,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리포트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주주총회 안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제 및 내용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